

2014년 2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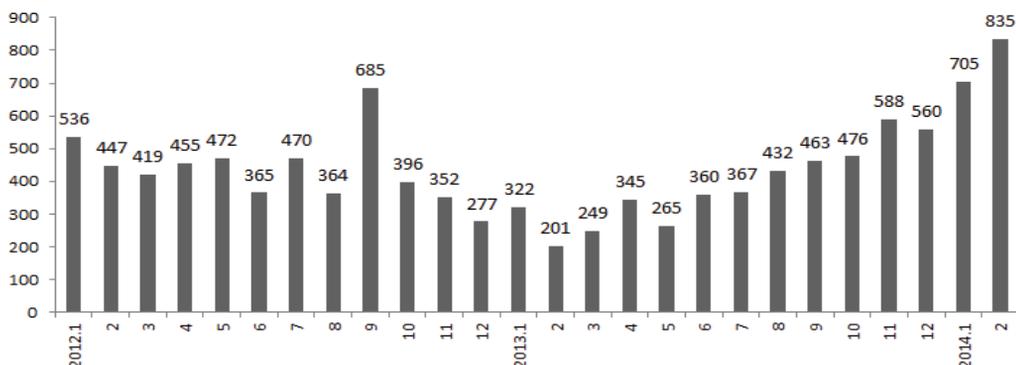
1 2014년 2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 2013년 2월 대비 835천 명 증가

- 2013년 2월 20만 1천 명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을 늘리는 추세 지속
- 이와 같은 큰 폭의 증가에는 기저효과도 작용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1,052 (1.1)	41,582 (1.3)	42,096 (1.2)	41,369 (1.2)	41,926 (1.3)	42,343 (1.0)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5,099 (1.4)	25,501 (1.6)	25,873 (1.5)	24,825 (1.6)	24,973 (0.6)	25,997 (4.1)
	취업자 (증가율)	24,244 (1.7)	24,681 (1.8)	25,066 (1.6)	23,783 (1.9)	23,984 (0.8)	24,819 (3.5)
	(증가수)	(415)	(436)	(386)	(447)	(201)	(835)
	(남성)	(238)	(234)	(186)	(244)	(47)	(453)
	(여성)	(177)	(203)	(200)	(203)	(154)	(382)
	참가율	61.1 (73.1)	61.3 (73.3)	61.5 (73.2)	60.0 (72.2)	59.6 (71.6)	61.4 (73.3)
	(남성)	(73.1)	(73.3)	(73.2)	(72.2)	(71.6)	(73.3)
	(여성)	(49.7)	(49.9)	(50.2)	(48.3)	(48.1)	(50.0)
	고용률	59.1 (70.5)	59.4 (70.8)	59.5 (70.8)	57.5 (69.3)	57.2 (68.6)	58.6 (70.1)
	(남성)	(70.5)	(70.8)	(70.8)	(69.3)	(68.6)	(70.1)
	(여성)	(48.1)	(48.4)	(48.8)	(46.2)	(46.3)	(47.6)
실업자	855	820	807	1,042	990	1,178	
실업률	3.4 (3.6)	3.2 (3.4)	3.1 (3.3)	4.2 (4.1)	4.0 (4.2)	4.5 (4.3)	
(남성)	(3.6)	(3.4)	(3.3)	(4.1)	(4.2)	(4.3)	
(여성)	(3.1)	(3.0)	(2.9)	(4.4)	(3.7)	(4.8)	
비경황 (증가율)	15,953 (0.7)	16,081 (0.8)	16,223 (0.9)	16,544 (0.6)	16,953 (2.5)	16,346 (-3.6)	
15 ~ 64 세	참가율	66.2 (77.4)	66.4 (77.6)	66.6 (77.6)	65.6 (77.0)	65.2 (76.3)	67.2 (78.2)
	(남성)	(77.4)	(77.6)	(77.6)	(77.0)	(76.3)	(78.2)
	(여성)	(54.9)	(55.2)	(55.6)	(54.1)	(54.0)	(56.3)
	고용률	63.8 (74.5)	64.2 (74.9)	64.4 (74.9)	63.0 (74.0)	62.7 (73.2)	64.4 (74.9)
	(남성)	(74.5)	(74.9)	(74.9)	(74.0)	(73.2)	(74.9)
	(여성)	(53.1)	(53.5)	(53.9)	(52.0)	(52.2)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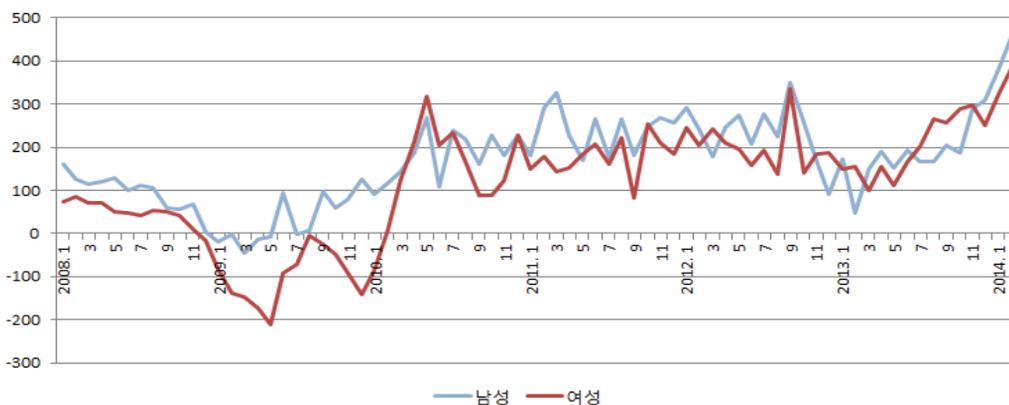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고용률 : 2013년 2월 대비 1.4%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1.7%p 상승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2013년 2월 대비 18만 9천 명 증가, 실업률도 0.5%p 상승
- 노동시장 여건 개선 반영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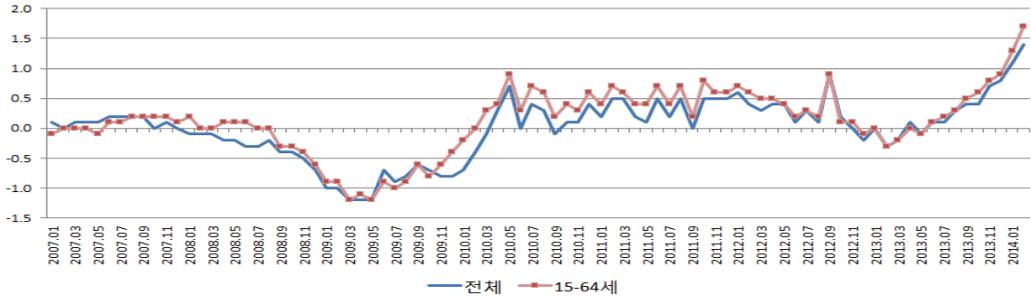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비경제활동인구 : 2013년 2월 대비 60만 6천 명 감소(증가율 -3.6%)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2월을 저점으로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그림 3)
- ◎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3년 2월 2.5%를 정점으로 증가폭이 줄기 시작해 2월에는 -3.6% 기록(그림 4, 5)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6)
- 공공부문 취업자 수 2월 22천 명 증가, 민간부문 취업자 수 2월 812천 명 증가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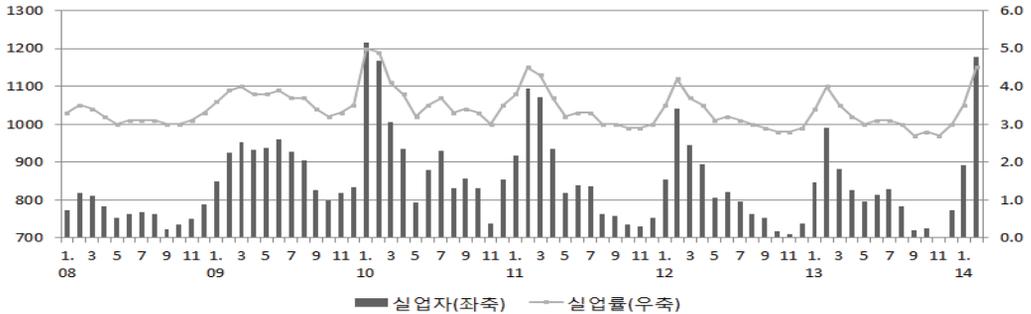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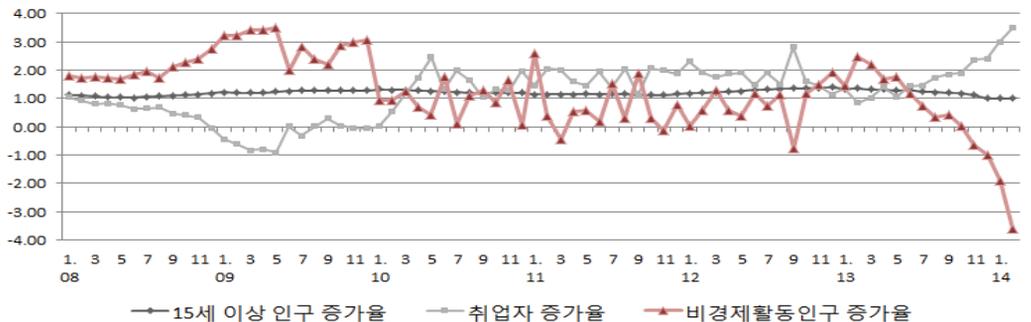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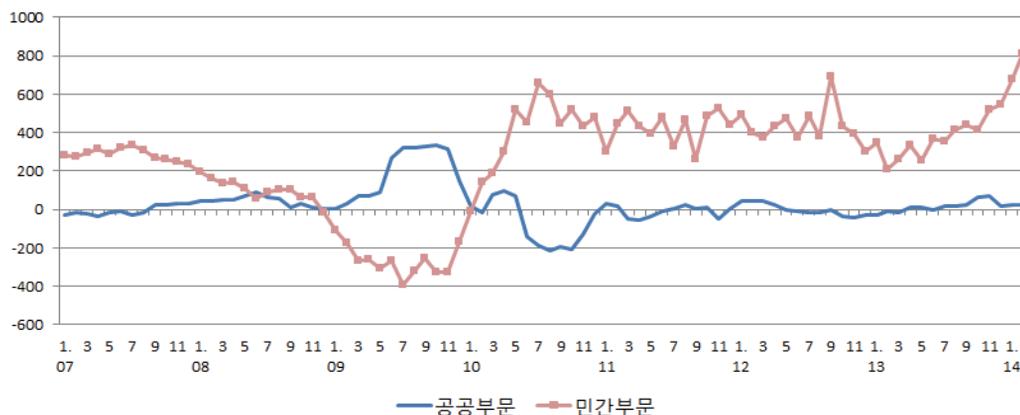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입직은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던 2010년 초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직은 2010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어서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가능했음

- 입직이 늘고 이직이 줄면 저량 변수인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월과 이직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계산
- 각 연도 1~2월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입직자 수는 3개월 미만 근속한 사람의 숫자, 이직자 수는 3개월 미만 이직자 숫자임
-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던 2010년 초와 비교해 보면 입직자 수는 이때보다 약간 작은 수준인 140천 명을 보여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동시에 이직은 취업자 수가 40만 명대로 크게 증가했던 2011년과 2012년보다 20~30만 명 정도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직 감소는 2013년 1~2월과 비교할 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90천 명 ↓) 및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59천 명 ↓)에서 주로 나타나 경기 회복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

〈표 2〉 각 연도 1~2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증감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3개월 미만	2,442	2,393	2,413	2,243	2,383	179	-48	19	-170	140
1년 미만	3,369	3,412	3,341	3,239	3,291	12	43	-72	-102	52
1년~3년 미만	3,626	3,780	3,868	4,026	4,042	-56	154	88	158	17
3년 이상	13,429	13,680	14,136	14,511	15,072	-70	251	456	375	561
전 체	22,866	23,266	23,757	24,019	24,789	65	400	491	262	7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1~2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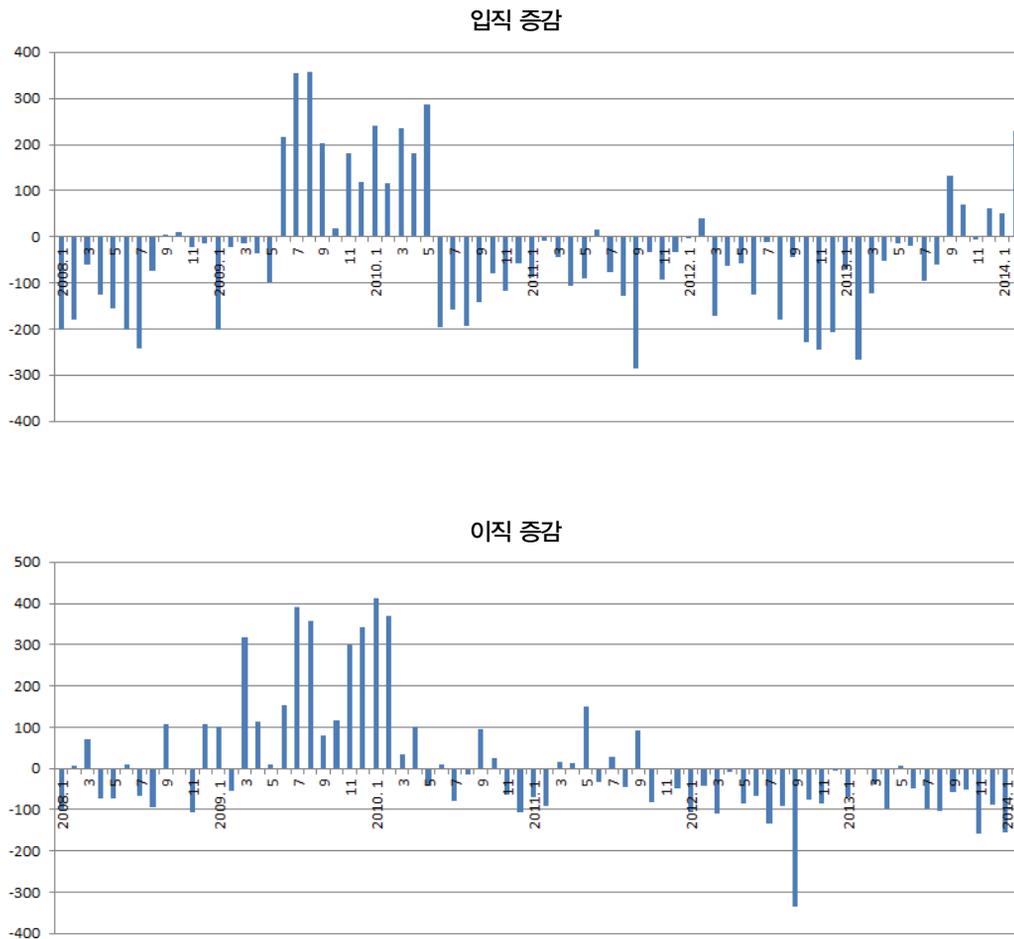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3 증감	2014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452	560	568	608	555	544	-54	-10
육아	29	31	34	33	31	37	-2	7
가사	25	38	35	27	32	27	5	-6
심신장애	10	11	7	8	8	8	0	0
정년퇴직, 연로	25	28	28	26	29	22	4	-7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46	211	195	192	222	162	29	-59
직장의 휴업, 폐업	71	36	35	34	38	31	4	-7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115	66	47	48	37	53	-11	16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512	761	743	677	661	602	-16	-59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324	326	286	291	292	202	1	-90
기타	16	50	58	18	22	28	4	7
전 체	1,726	2,117	2,037	1,962	1,926	1,718	-36	-2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수를 그린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4년 2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의 고용증가 주도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4년 2월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더불어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148천 명 ↑) 영향
 - 2월에 2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7천 명 감소하였으나 이는 인구 감소 영향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585천 명(357천 명+228천 명) 증가

〈표 4〉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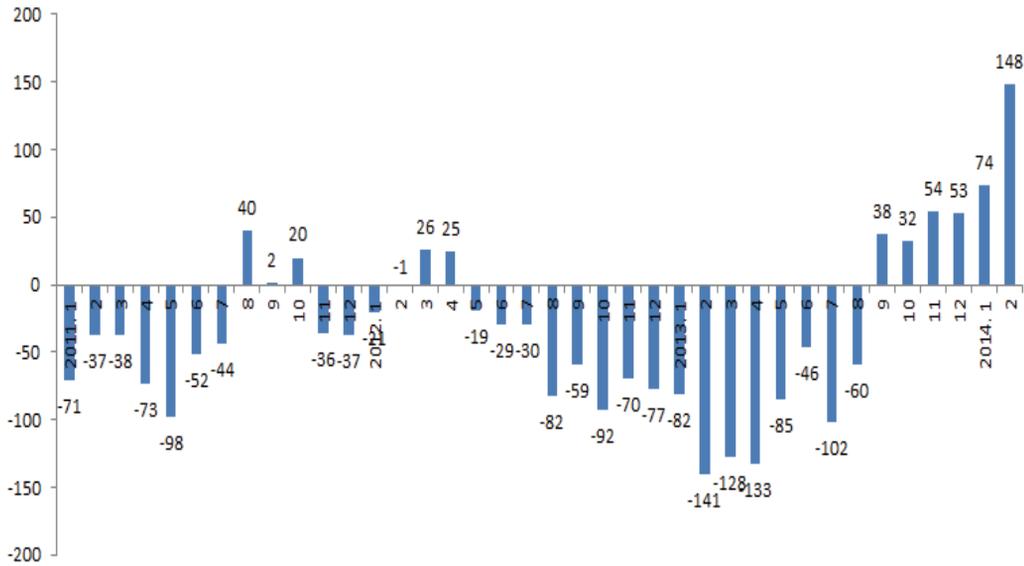
	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2014. 2	2012. 2	2013. 2
15~29세	-35	-36	-50	-1	-141	148	3,869	-98	10	-22
15~19세	22	4	-7	-6	18	22	281	-47	-19	-67
20대	-58	-40	-44	5	-159	126	3,588	-51	29	45
20~24세	-11	89	29	82	-11	133	1,334	113	137	109
25~29세	-47	-129	-73	-77	-148	-7	2,253	-164	-109	-64
30대	-47	-31	-21	-53	-17	-6	5,662	-109	-63	-113
30~34세	44	79	57	91	103	6	2,872	37	66	-19
35~39세	-91	-110	-78	-144	-120	-12	2,790	-145	-129	-95
40대	57	11	22	32	13	109	6,630	14	39	-26
50대	291	270	254	308	176	357	5,676	331	273	220
60세 이상	149	222	181	160	170	228	2,982	352	298	358
전 체	416	437	386	447	201	835	24,818	490	557	4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6개월 연속 증가
 -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2013년 2월 39.0% → 2014년 2월 40.6%)

[그림 8]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성별 고용률 남성 1.5%p, 여성 1.3%p 상승

- 남녀 모두 청년 고용률 상승
- 여성 10대와 30대 초반(30~34세)을 제외한 남녀 연령별 고용률 모두 상승

〈표 5〉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전체	전체	59.1	59.4	59.5	57.5	57.2	58.6
	15~29세	40.5	40.4	39.7	40.5	39.0	40.6
	15~19세	6.8	7.0	6.9	7.3	7.9	8.7
	20대	58.5	58.1	56.8	58.1	55.3	56.9
	20~24세	43.5	44.5	43.2	43.8	41.3	44.3
	25~29세	69.7	69.2	68.8	69.5	67.3	68.4
	30대	72.2	72.7	73.2	71.6	71.9	72.9
	30~34세	71.0	72.2	72.9	70.8	72.2	72.7
	35~39세	73.3	73.2	73.5	72.4	71.7	73.2
	40대	78.4	78.3	78.4	77.1	76.9	78.4
	50대	71.6	72.2	73.1	70.4	70.2	72.8
60세 이상	36.5	37.5	38.4	31.7	32.6	33.9	
남성	전체	70.5	70.8	70.8	69.3	68.6	70.1
	15~29세	38.8	38.7	38.1	39.6	37.3	38.8
	15~19세	5.5	5.7	5.9	5.9	6.1	7.8
	20대	58.3	57.3	55.7	58.7	54.6	55.3
	20~24세	37.2	39.1	38.2	40.4	37.2	39.4
	25~29세	71.6	70.4	69.6	71.5	67.9	68.3
	30대	89.8	90.3	90.2	89.5	89.1	90.5
	30~34세	87.9	89.0	88.4	88.0	87.4	89.0
	35~39세	91.6	91.7	92.1	91.0	90.9	92.1
	40대	91.6	91.7	92.0	90.7	90.9	92.4
	50대	85.4	86.3	86.7	84.3	83.7	86.1
60세 이상	49.3	49.9	51.0	44.3	45.2	46.9	
여성	전체	48.1	48.4	48.8	46.2	46.3	47.6
	15~29세	42.1	42.1	41.3	41.3	40.6	42.4
	15~19세	8.1	8.3	7.9	8.8	9.8	9.7
	20대	58.7	58.8	57.8	57.5	55.9	58.4
	20~24세	48.2	48.9	47.5	46.5	44.8	48.4
	25~29세	67.8	68.0	68.0	67.4	66.7	68.5
	30대	53.7	54.5	55.5	52.9	54.2	54.7
	30~34세	53.2	54.8	56.7	52.8	56.4	55.7
	35~39세	54.1	54.1	54.4	53.0	52.0	53.8
	40대	64.9	64.6	64.6	63.2	62.6	64.2
	50대	57.7	58.1	59.5	56.6	56.8	59.5
60세 이상	26.6	27.9	28.6	22.0	22.9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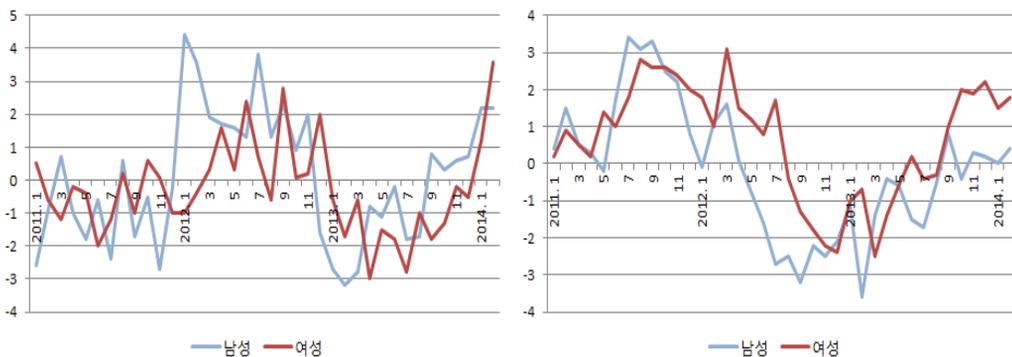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대도 경기회복으로 인해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난 상태

-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상승 추세
- 20대 후반의 경우 여성의 상승 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월별 고용률 집계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25~29세 고용률(68.5%)이 남성 25~29세 고용률(68.3%)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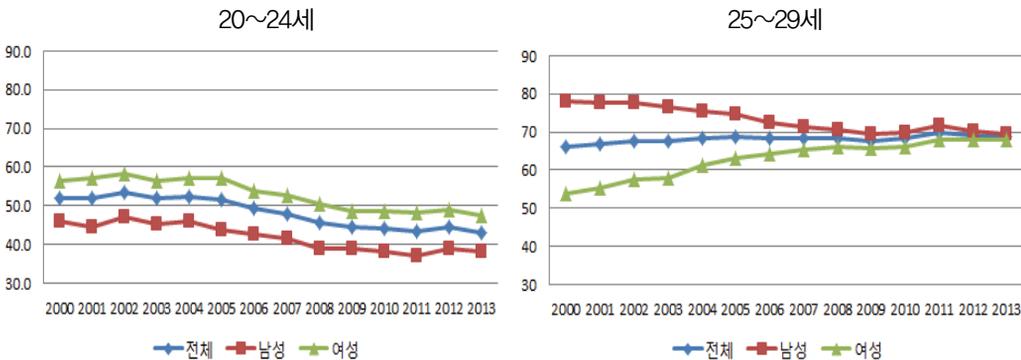
[그림 9]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20~24세 좌측, 25~29세 우측)

(단위 :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0] 연령별·성별 20대 고용률 장기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 취업자 수 증가폭의 확대는 상용직 대폭 증가, 임시·일용직 증가 등 임금근로자의 큰 증가가 주요 요인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635천 명 증가 및 임시·일용직 169천 명 증가에 따라 803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3천 명)는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44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천 명)는 증가

〈표 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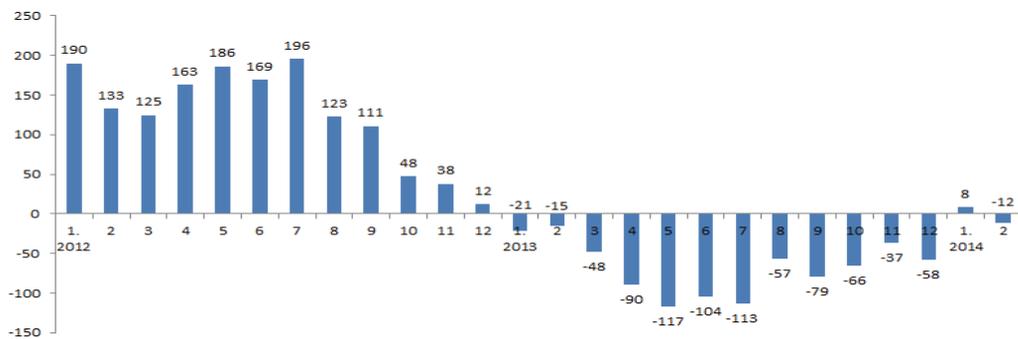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전 체	416	436	386	447	201	835
임금	427	315	483	369	267	803
상용직	575	436	615	417	529	635
임시직	-78	-2	-96	95	-151	99
일용직	-70	-120	-37	-143	-110	70
비임금	-11	121	-97	77	-66	3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43	-39	53	-44	-1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	81	-28	80	29	1
무급가족종사자	-12	-3	-30	-56	-51	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1〕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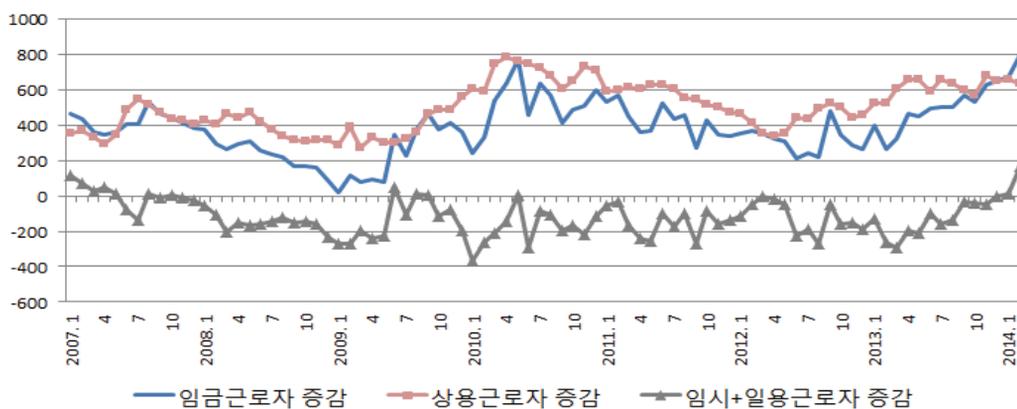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2013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60만 명대를 기록한 데에 이어 2014년 2월 803천 명 증가
 - 2013년 11월 631천 명 ↑, 12월 651천 명 ↑, 2014년 1월 675천 명 ↑ 2월 803천 명 ↑
 - 2013년 3월 이후 임시·일용직도 꾸준히 감소폭이 둔화되어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왔는데, 2014년 2월에는 169천 명 증가

[그림 12]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50대(254천 명 ↑), 40대(169천 명 ↑)가 주도
 - 25~29세는 상용직 감소(13천 명 ↓), 고용원 없는 자영자 증가(36천 명 ↑)
 - ※ 25~29세 고용원 없는 자영자는 교육서비스업(17천 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1천 명 ↑)에서 증가

〈표 7〉 종사상 지위별·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15~24세	상용직	0	56	39	43	26	101
	임시직	26	39	-15	42	-16	55
	일용직	-1	2	-1	-8	-6	8
	고용원 있는 자영자	2	0	0	2	-1	1
	고용원 없는 자영자	-16	1	-7	1	3	-6
	무급가족종사자	0	-5	7	-4	2	-4
25~29세	상용직	20	-69	-26	-52	-48	-13
	임시직	-57	-47	-37	-17	-69	-49
	일용직	-15	-10	3	-15	5	4
	고용원 있는 자영자	7	1	-11	24	-22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	-6	0	-6	-11	36
	무급가족종사자	-3	2	-1	-9	-3	18
30~39세	상용직	155	90	145	66	171	35
	임시직	-90	-86	-113	-53	-150	2
	일용직	-24	-38	-25	-17	-43	-14
	고용원 있는 자영자	-11	-10	-12	-31	-4	5
	고용원 없는 자영자	-74	20	-7	-14	21	-26
	무급가족종사자	-3	-7	-8	-4	-12	-8
40~49세	상용직	221	141	190	168	156	169
	임시직	-37	-39	-28	-37	-34	23
	일용직	-53	-64	-40	-37	-65	4
	고용원 있는 자영자	-25	5	-29	-2	-19	-40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	-21	-53	-19	-13	-40
	무급가족종사자	-28	-11	-18	-41	-13	-8
50~59세	상용직	141	182	206	139	193	254
	임시직	67	54	17	100	37	26
	일용직	-4	-15	23	-49	-2	40
	고용원 있는 자영자	19	22	10	35	-17	38
	고용원 없는 자영자	56	36	-5	75	1	-32
	무급가족종사자	11	-9	2	9	-35	31
60세 이상	상용직	38	37	61	53	31	90
	임시직	13	77	81	60	81	42
	일용직	27	5	3	-16	1	27
	고용원 있는 자영자	15	26	3	26	19	-14
	고용원 없는 자영자	47	51	44	43	28	69
	무급가족종사자	10	26	-11	-6	10	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기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205천 명 ↑)과 도매 및 소매업(145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8천 명 ↑)의 증가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남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
 - 임시직은 숙박 및 음식점업(97천 명 ↑), 일용직은 건설업(76천 명 ↑)에서 크게 증가

〈표 8〉 2014년 2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205	3,027	80.3	-43	-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	70	88.2	4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	59	84.5	2	-1
건설업	-4	549	43.4	19	76
도매 및 소매업	145	1,182	51.8	38	-9
운수업	38	603	78.4	-10	6
숙박 및 음식점업	41	248	19.6	97	-1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	589	91.5	-22	-3
금융 및 보험업	-6	524	64.0	4	-2
부동산 및 임대업	27	204	54.0	29	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	777	89.2	11	-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727	66.8	-7	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	747	82.2	-6	4
교육서비스업	47	958	69.1	26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8	1,158	79.4	19	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100	44.4	-12	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3	392	51.2	-16	20
기타	11	56	22.0	-31	-27
전 체	635	11,970	65.4	99	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 각 연도 2월 근속기간별·학력별 상용직 근로자수 및 전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상용직 근로자수				전기대비 증감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전체	3개월 미만	466	490	411	463	61	24	-79	52
	1년 미만	1,392	1,406	1,449	1,530	96	14	43	80
	1~3년 미만	2,279	2,428	2,614	2,641	120	149	186	27
	3년 이상	6,253	6,482	6,862	7,337	326	230	379	475
	전체	10,390	10,807	11,336	11,970	604	417	529	634
고졸 이하	3개월 미만	190	200	187	204	-16	10	-13	17
	1년 미만	601	604	640	627	22	3	36	-13
	1~3년 미만	921	955	1,017	1,080	37	34	62	63
	3년 이상	2,410	2,468	2,581	2,722	128	58	113	141
	전체	4,123	4,227	4,426	4,633	172	104	199	207
전문 대졸 이상	3개월 미만	276	290	224	259	77	13	-66	36
	1년 미만	791	803	809	903	75	12	7	94
	1~3년 미만	1,358	1,473	1,597	1,561	83	115	124	-36
	3년 이상	3,842	4,015	4,281	4,615	198	172	266	334
	전체	6,267	6,580	6,910	7,338	432	312	331	4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비임금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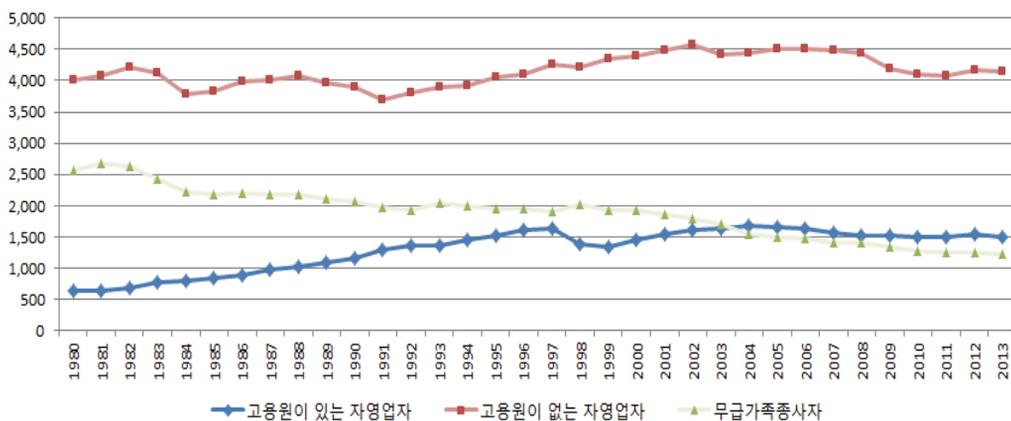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장기적인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40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2년에 다소 회복세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 최근의 규모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가능

[그림 13]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그 변화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나, 증가 추세도 보이지 않아 당분간 소폭 감소, 소폭 증가를 반복하는 횡보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그림 14]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KOSIS.

- ◎ 2014년 2월의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천 명 ↑) 등에서 증가하였고, 제조업(15천 명 ↓) 등에서는 감소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4천 명 ↓) 등에서 감소하였고, 교육서비스업(28천 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천 명 ↑) 등에서는 증가

〈표 10〉 2014년 2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임업 및 어업	5	37	8	730
제조업	-15	199	-7	2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	0	3
건설업	-11	155	-18	225
도매 및 소매업	1	350	-20	864
운수업	1	32	0	601
숙박 및 음식점업	-1	294	10	28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21	11	43
금융 및 보험업	0	9	5	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28	-1	9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	68	15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	28	2	30
교육서비스업	-2	72	28	28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79	-4	3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33	5	1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	87	-44	393
기타	0	1	11	15
전 체	-14	1,493	1	3,9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2014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835천 명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고용증가세가 주도
 - 제조업은 2014년 2월 현재 135천 명 증가하여 2013년 8월(5천 명 ↑) 저점을 찍은 후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임(2013년 2월 79천 명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년 상반기 동안에만 120천 명 증가하는 등 고용증가세가 지속
 - ※ 제조업 고용증감: 120천 명 ↑('13.1~6) → 5천 명 ↑('12.8) → 82천 명 ↑('13.12) → 90천 명 ↑('14.1) → 135천 명 ↑('14.2)
 -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은 2014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612천 명 증가하면서 최근 고용증가세를 견인. 서비스업 고용은 2012년 9월(466천 명 ↑) 정점에 도달한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2013년 3월(156천 명 ↑) 저점을 찍은 후 고용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
 -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는 2013년 3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
 - ※ 서비스업 고용증감: 156천 명 ↑('13.3) → 596천 명 ↑('13.11) → 495천 명 ↑('13.12) → 545천 명 ↑('14.1) → 612천 명 ↑('14.2)
 - 특히 서비스업 부문 중 고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수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도소매업(182천 명 ↑)과 음식·숙박업(146천 명 ↑) 부문에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
 - 국제금융위기 이전부터 고용감소세가 지속되었던 도소매업은 2011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2년까지 이어지다가 2013년 들어 고용감소세로 전환. 2014년 2월 현재 도소매업 고용은 2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5개월 증가세를 보임. 이는 2013년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도소매업 생산은 2014년 1월 전년동월대비 2.2%, 전월대비 1.6%↑)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국제금융위기 때부터 감소세를 지속해 오다가 2012년 1월부터 증가세 지속. 2014년 2월 현재 146천 명 증가하여 최근 4개월 연속 100천 명

이상의 고용증가폭 기록. 여기에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고용증가폭 둔화(2014년 2월 현재 110천 명↑)

〈표 11〉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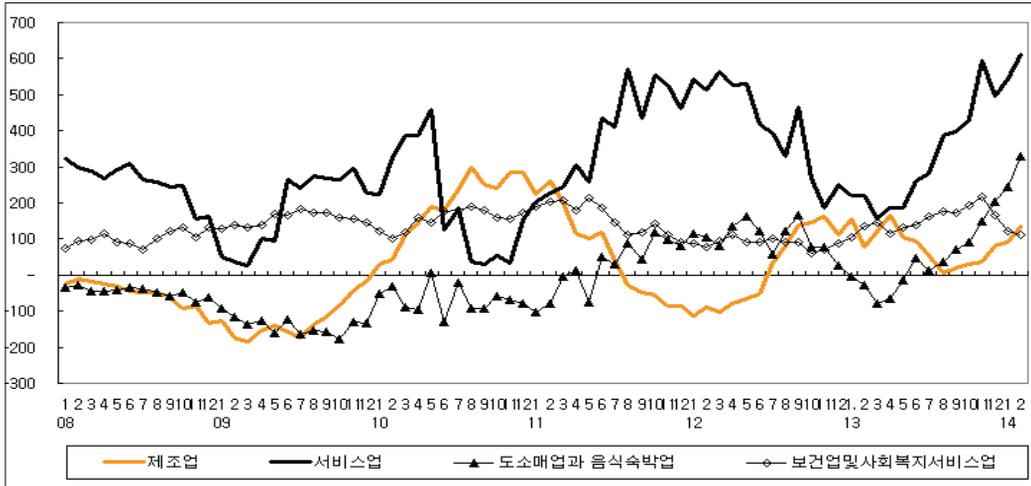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447	201	835
제조업	63	14	79	-88	79	135
서비스업	386	416	318	514	222	612
도매 및 소매업	58	51	-29	71	-69	182
운수업	52	48	34	72	17	36
숙박 및 음식점업	-36	53	64	34	42	14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등	35	-3	-8	39	-54	31
금융 및 보험업	38	-4	22	24	13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0	-1	-1	-22	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7	67	-6	66	48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등	64	30	57	7	93	12
공공행정 등	-9	-0	14	47	-8	23
교육서비스업	-113	58	4	33	-9	9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	88	155	78	134	11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7	-8	-17	4	-27	-5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45	25	26	20	64	-29
건설업	-2	22	-19	77	-95	59
농림어업	-25	-14	-8	-37	-15	29
공공	-9	-0	14	47	-8	23
민간	424	436	372	400	209	8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5]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14년 2월 현재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고용증가세 지속

- 2014년 2월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712천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폭 또한 확대되는 추세(2013년 5월 저점 115천 명 ↑). 상용직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반면, 임시직의 고용이 81천 명 증가
-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은 전년동월대비 201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임시직 59천 명 ↑, 일용직 103천 명 ↑, 건설업 91천 명 ↑)
- 중소기업 고용증가는 50~60세 이상 중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15~29세) 고용이 2013년 9월부터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2014년 2월 현재 116천 명 ↑, 청년층 신규채용 76천 명 ↑). 특히 20대 연령층의 신규채용은 전년동월대비 82천 명 증가하였으나 음식·숙박업(46천 명 ↑), 공공행정 등(21천 명 ↑), 임시·일용직(60천 명 ↑)에 집중
- 한편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2014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23천 명 증가.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은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전년대비 119천 명까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상당한 고용감소로 인한 충격을 다소 완화. 그러나 이

후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증가폭은 크게 둔화되었다가 2013년에 전년대비 114천 명 증가, 2014년 2월 전월대비 123천 명 증가. 이와 더불어 대규모 사업체에서 신규채용은 2013년 5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

〈표 12〉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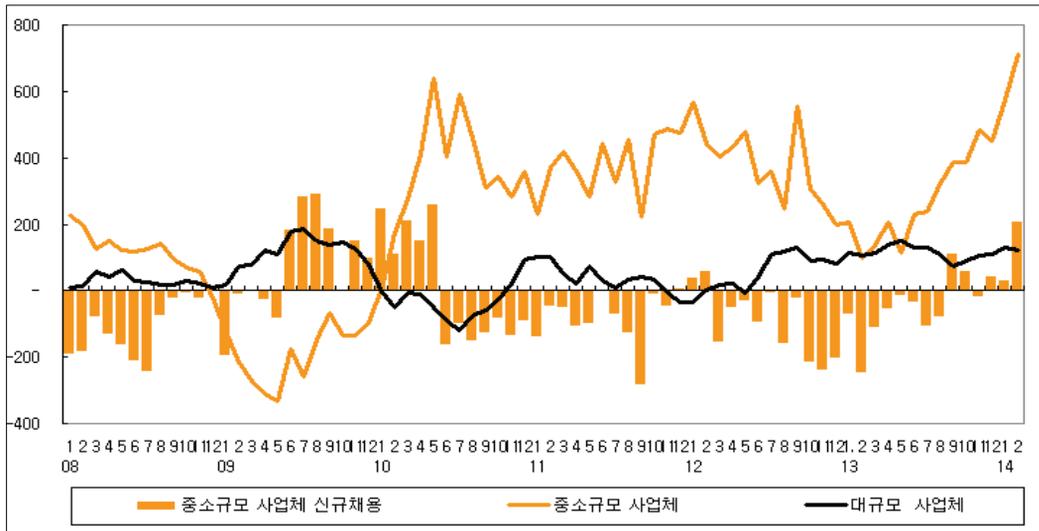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1	2013.1	2014.1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447	201	835
중소규모 사업체	378	381	272	444	96	712
(신규채용)	-81	-90	-43	62	-247	209
(상용직 신규채용)	26	-3	-2	17	-62	46
대규모 사업체	37	55	114	3	105	123
(신규채용)	0	-18	5	-20	-21	21
(상용직 신규채용)	3	-1	2	6	-17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6]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및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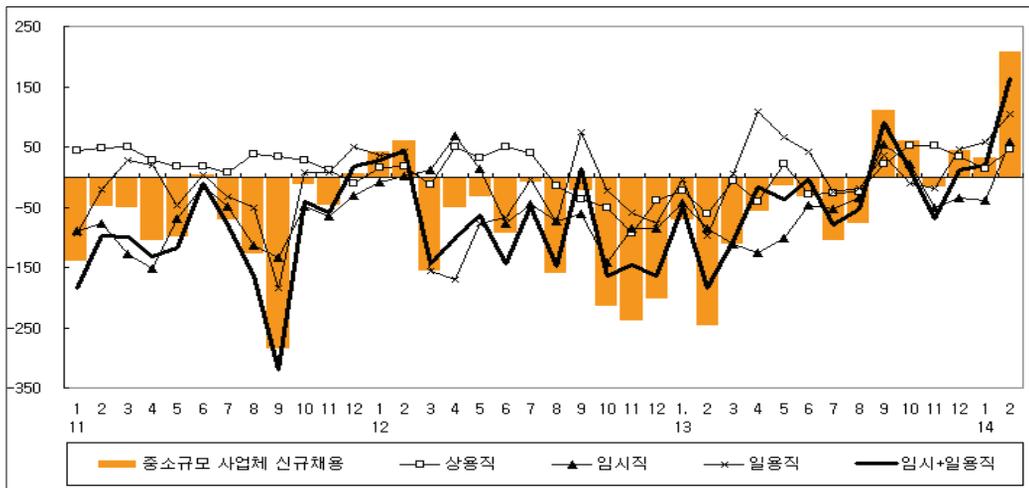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7] 중소기업 신규채용 및 종사상 지위별 신규채용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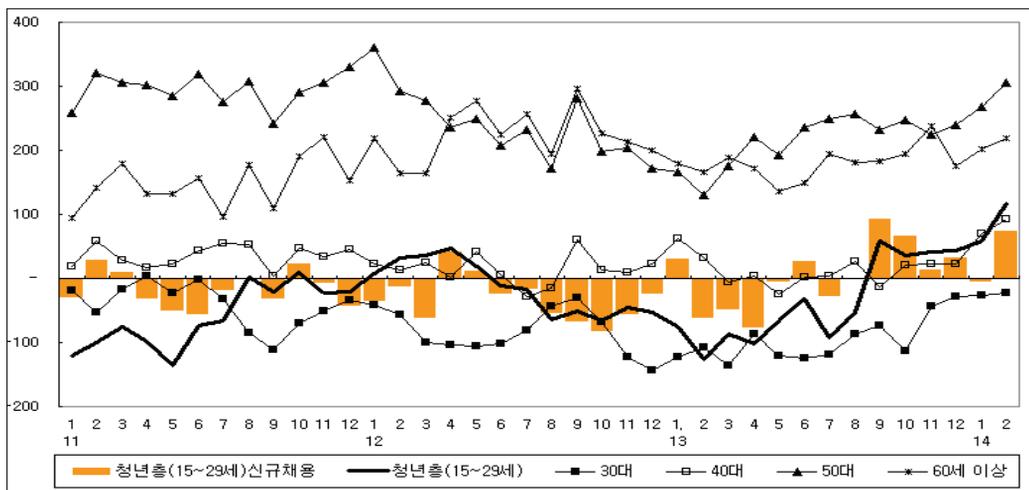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8] 중소기업의 연령별 취업자 증감 및 청년층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3〉 사업체 규모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중소 규모 사업체	전 체	378	381	272	444	96	712
	상용직	537	355	505	361	423	534
	임시·일용직	-148	-95	-137	5	-261	146
	자영업자	1	124	-67	133	-15	-12
	20대	-77	-19	-31	31	-151	103
	50세 이상	444	464	394	456	298	525
	제조업	76	-41	39	-76	14	80
	도소매업	57	58	-29	86	-66	151
	음식·숙박업	-40	54	62	38	43	1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1	89	129	79	107	117
	건설업	2	18	-20	77	-99	66
대규모 사업체	전 체	37	55	114	3	105	123
	상용직	37	81	110	55	106	100
	임시·일용직	0	-26	4	-52	-1	23
	20대	19	-20	-13	-26	-8	23
	50세 이상	-3	28	41	12	49	60
	제조업	-13	55	41	-12	64	54
	도소매업	1	-7	0	-15	-3	30
	공공행정 등	14	-5	1	19	-15	26
	교육서비스업	-9	9	14	16	7	16
	건설업	-5	4	1	0	4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	-1	26	-1	28	-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고용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단순노무직의 고용증가폭 확대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36천 명 ↑), 판매직(182천 명 ↑), 단순노무직(121천 명 ↑)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고용이 201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45천 명 ↑)

〈표 14〉 직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취업자 전체		415	436	386	447	201	83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소 계	114	106	175	105	97	236
	30~40대 연령층	49	66	105	79	44	137
	남성	40	38	45	49	1	97
	여성	75	68	130	57	96	140
	교육서비스업	-108	30	18	5	-4	98
	출판·영상 등	47	3	10	45	-30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2	79	112	68	126	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소 계	12	29	-58	55	-107	45
	50대 연령층	49	31	-1	51	-57	69
	건설업	23	36	-51	74	-87	45
	도소매업	8	-13	-1	-0	-32	35
	제조업	4	4	-20	9	-13	-40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 계	42	-52	23	-37	-65	121
	30~40대 연령층	-16	-107	-56	-76	-115	20
	남성	12	-39	1	-48	-67	127
	제조업	2	-38	-4	-45	-28	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7	-2	-21	-7	-32	50
운수업	25	5	3	9	0	25	
관리자	-47	-51	-61	-57	-48	-20	
사무 종사자	252	108	118	187	59	164	
서비스 종사자	35	77	29	82	48	94	
판매 종사자	-39	114	23	86	45	88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22	6	1	-45	10	2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9	99	135	71	161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3개월 연속 증가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증가했다가 2010년 6월부터 감소세가 지속. 그러나 2014년 2월 현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30천 명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
-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대부분 임시·일용직(178천 명 ↑)으로 나타남. 이

중 20대 연령층은 음식·숙박업(49천 명 ↑), 교육서비스업(19천 명 ↑)에 집중된 반면, 50대 연령층은 건설업(44천 명 ↑), 도소매업(11천 명 ↑) 중심으로 신규채용되어 연령대별 신규채용 업종 상이

〈표 15〉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전체	426	315	483	369	267	803
	3개월 미만	-81	-108	-37	41	-268	230
	3~12개월 미만	-48	17	-75	-75	-92	50
	12개월 이상	556	406	595	404	627	524
상용직	전 체	574	436	615	417	529	635
	신규채용	29	-5	0	24	-79	52
입시 일용직	전 체	-148	-121	-133	-47	-262	169
	신규채용	-110	-103	-37	18	-189	178
	20대	-31	-29	5	-2	-64	66
	50대	2	11	16	14	-28	63
	건설업	-27	-10	18	12	-44	89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18	-23	-4	5	-52	72
제조업	전 체	69	40	119	-73	116	159
	신규채용	-11	-21	-10	2	-45	3
	(상용직)	8	-7	6	1	-19	18
서비스업	전 체	379	317	346	427	242	555
	신규채용	-44	-62	-39	32	-173	137
	(상용직)	23	4	-9	31	-66	34
신규채용 특징별	중소규모 사업체	-81	-90	-43	62	-247	209
	대규모 사업체	0	-18	5	-20	-21	21
	20세 미만	9	-3	2	-31	27	1
	20대	-23	-40	5	5	-103	93
	30대	-44	-55	-27	-5	-76	11
	40대	-40	-46	-29	12	-69	-11
	50대	8	18	9	16	-37	85
	60세 이상	9	18	3	44	-9	51
	건설업	-28	-12	21	7	-38	91
	도소매업	-1	-20	-14	10	-55	36
	운수업	-1	-4	1	-1	-20	17
	음식·숙박업	-10	-3	11	13	-10	35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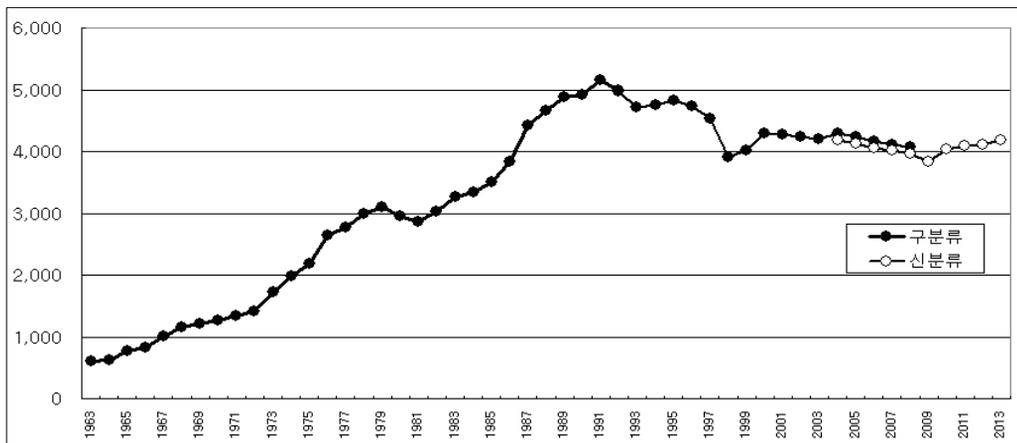
(1) 제조업 부문 : 생산·내수·수출 감소, 고용증가세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4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였으며, 내수, 수출 모두 각각 -4.0%, -5.6% 증가
 - 제조업 고용은 2014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90천 명 증가(2014년 2월 현재 135천 명 ↑)
 -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0.9%로 2012년(0.3%)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2013년 9월 이후 상승세(2014년 2월 현재 3.3%)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 추세이며, 2014년 들어 가파른 증가세
 - 제조업 고용은 2014년 2월 현재 135천 명 증가하면서 2013년 8월 저점(5천 명 ↑) 이후 증가세
 - 제조업은 상용직(205천 명 ↑)을 제외한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 50대 연령층, 특히 55~59세 연령층(86천 명 ↑)의 고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20대 연령층의 고용 또한 9개월 만에 증가

[그림 19] 제조업 고용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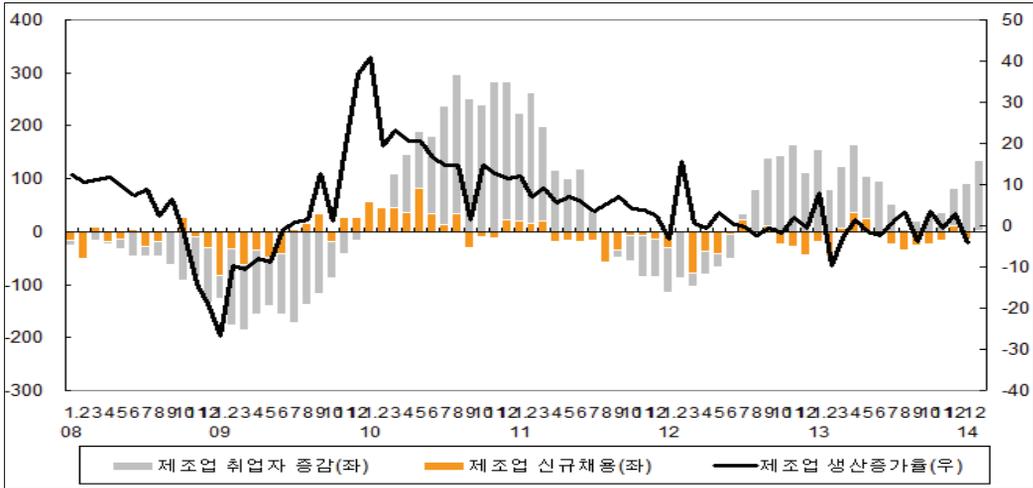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0] 제조업 고용증감 및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6> 제조업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제조업 취업자 전체		63	14	79	-88	79	135
(신규채용)		-11	-21	-10	2	-45	3
지위별	상용직	110	84	152	-36	136	205
	자영업자	-1	-14	-28	-8	-16	-21
연령별	25~29세	-4	-38	-45	-37	-64	6
	55~59세	12	25	34	15	28	86
사업체 규모별	중소규모	76	-41	39	-76	14	80
	대규모(300인 이상)	-13	55	41	-12	64	54
직종별	사무직	31	9	22	-1	-16	69
	단순노무직	2	-38	-4	-45	-2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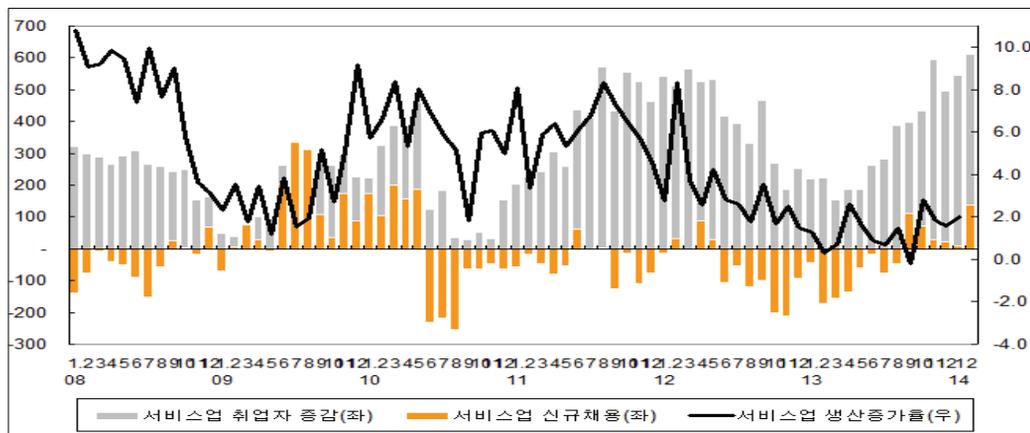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서비스업 부문 : 생산과 고용증가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4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서비스업 고용은 2014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45천 명 증가(2014년 2월 현재 612천 명 ↑)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2013년 1.9%로 2012년(2.5%)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2014년 2월 현재 3.6%로 상승세

[그림 21]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4년 2월 현재 서비스업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612천 명 증가함으로써 최근 고용 증가세 견인
 - 2013년 3월 저점(155천 명 ↑)에 도달한 이후 고용증가폭 확대
 - 2014년 2월 현재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는 상용직(434천 명 ↑)과 더불어 임시직(123천 명 ↑)의 고용에 기인
 - 자영업자 또한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고용증가
 - 서비스업 부문 임시직은 2012년 7월부터 감소세가 시작되어 2013년 한 해 동안 65천 명 감소. 그러나 2013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4년 2월 현재 123천 명 증가

- 서비스업 임시직은 남성근로자(88천 명 ↑)를 중심으로 40대 연령층(60천 명 ↑)과 20~24세 연령층(31천 명 ↑)에 집중
- 서비스업 종사자 중 20~24세 연령층은 전년동월대비 121천 명 증가. 이들은 주로 음식·숙박업(70천 명 ↑)에 집중되었으며, 상용직(85천 명 ↑)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내내 감소세였던 임시직(31천 명 ↑)이 증가(20~24세 신규 채용(81천 명 ↑))
- 서비스업 부문 고용을 세부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182천 명 ↑), 음식·숙박업(182천 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0천 명 ↑), 교육서비스업(99천 명 ↑) 중심으로 고용증가

〈표 17〉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서비스업 전체	386	416	318	514	222	612	
(신규채용)	-44	-62	-39	32	-173	137	
지위별	상용직	475	345	419	453	364	434
	임시직	-57	36	-65	60	-96	123
	일용직	-39	-65	-9	-85	-26	-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6	52	-12	76	-13	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	53	-4	37	24	18
	무급가족종사자	-0	-6	-11	-26	-31	32
성별	남성	236	175	93	273	-15	306
	여성	150	241	225	241	236	306
연령별	20대	-21	-22	-8	17	-83	103
	20~24세	5	75	8	69	-16	121
	30대	1	26	-76	50	-53	-1
	35~39세	-38	-38	-98	-36	-116	-31
	40대	56	36	95	29	67	135
	50세 이상	327	376	316	418	279	366
세부 산업별	도소매업	58	51	-29	71	-69	182
	음식·숙박업	-36	53	64	34	42	1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158	88	155	78	134	110
	교육서비스업	-113	58	4	33	-9	99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16	119	150	141	80	200
	단순노무직	55	20	17	26	-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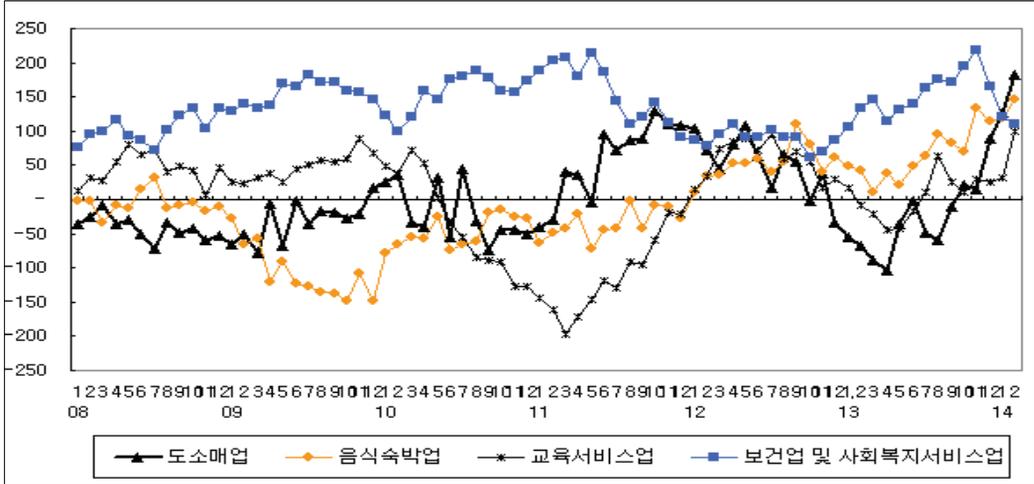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최근 고용증가세는 서비스업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서비스업 부문 성별 고용격차가 좁혀짐
 - 2013년 서비스업 고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에 집중. 그러다 보니 2013년 서비스업 종사자 중 남성의 비중은 51.8%로 2012년(52.2%)에 비해 하락. 그러나 최근 2~3개월 동안 성별 고용격차가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2014년 2월 현재 남성 고용증가폭이 약간 상회(임시직 88천 명 ↑, 자영업자 33천 명 ↑)

- ◎ 서비스업 고용을 산업별로 보면,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0천 명 ↑)과 더불어 내수에 기반한 대표적인 업종인 도소매업(182천 명 ↑), 음식·숙박업(146천 명 ↑)에 집중
 - 2014년 2월 현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10천 명 증가했으나 2013년 서비스업 고용증가세(134천 명 ↑)를 견인했던 것에 비해 증가폭 둔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 중심의 보건 및 사회복지, 종교관련직이나 의료보조직 등을 중심으로 Care Service에 집중
 - 한편 도소매업은 2013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 10월부터 증가하여 2014년 2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82천 명 증가. 이 산업에서 고용증가는 상용직이 주도하는 가운데 임시직의 고용도 3개월 연속 증가. 그러나 자영업자의 감소세는 지속.
 -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최근 4개월 연속 100천 명 이상 고용이 증가. 특히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임시직의 고용증가폭(97천 명 ↑)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4개월 연속 증가

[그림 2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8〉 서비스업 세부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도소매업	취업자 전체	58	51	-29	71	-69	182
	(신규채용)	-1	-20	-14	10	-54	36
	상용직	107	51	68	106	14	145
	임시직	-19	-10	-45	-25	-45	38
	일용직	0	-14	-13	-29	4	-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0	5	-20	25	-26	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2	23	-15	18	1	-20
	무급가족종사자	-8	-5	-5	-24	-16	26
	남성	82	18	-46	70	-93	100
	30대 연령층	-12	3	-72	15	-90	70
	50대 연령층	58	26	10	36	-29	50
음식·숙박업	취업자 전체	-36	53	64	34	42	146
	(신규채용)	-10	-3	11	13	-10	35
	상용직	25	5	33	-7	28	41
	임시직	-58	39	36	-6	22	97
	일용직	-8	-28	13	-33	12	-1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9	25	-15	44	-8	-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	2	-5	22	-15	10
	무급가족종사자	-2	10	2	14	3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158	88	155	78	134	110
	(신규채용)	13	-4	-2	7	-16	18
	상용직	130	112	132	89	153	88
	임시직	29	-16	7	2	-27	19
	일용직	-4	-7	0	-5	-8	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	0	16	-9	20	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	-2	-1	-1	-3	-4
	무급가족종사자	3	-0	1	1	-1	-1
	30대	18	31	27	14	46	-8
	50세 이상	51	43	66	50	41	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건설업 부문 : 생산과 고용증가

- 건설업의 2014년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하였고, 고용 또한 3개월 연속 증가세(2014년 1월 현재 59천 명 ↑)
- 건설업 취업자는 주로 50대 연령층,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특히 건설업의 신규채용은 일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 명 증가(일용직 80천 명 ↑)

〈표 19〉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2. 2	2013. 2	2014. 2
건설업 취업자 전체		-2	22	-19	77	-95	59
(50대 연령층)		43	22	6	13	-36	60
지위별	상용직	-7	11	24	25	10	-4
	임시직	20	-18	-16	39	-47	19
	일용직	-28	-12	0	-26	-52	7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	5	-15	-10	-5	-1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	33	-8	49	4	-18
	무급가족종사자	0	3	-4	1	-5	-4
신규채용 (지위별)	신규채용 전체	-28	-12	21	7	-38	91
	상용직	-2	-1	3	-5	6	2
	임시직	3	-6	-3	-5	3	8
	일용직	-30	-5	21	17	-47	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 지역별 고용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4년 2월 고용률은 제주도(66.3%), 서울(60.2%), 인천(59.8%) 순으로 높고, 강원도(50.2%), 전라북도(53.9%), 부산(54.7%)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025천 명), 서울(5,125천 명), 경상남도(1,618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12천 명), 울산(550천 명), 강원도(630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4년 2월 실업률은 인천(6.0%), 강원도(5.7%), 서울(5.1%) 순으로 높고, 경상남도(2.2%), 제주도(2.4%), 울산(3.5%)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충청북도(3.4%), 제주도(2.5%), 경기도(2.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전라남도(-1.1%), 강원도(-1.1%), 전라북도(-0.4%) 그리고 부산(-0.3%) 순으로 나타남

〈표 20〉 지역별 고용지표(2014년 2월 기준)

(단위: %, 천 명)

시도별	고용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 체	58.6 (1.4)	24,819 (835)	61.4 (1.8)	4.5 (0.5)
서울특별시	60.2 (1.6)	5,125 (141)	63.5 (2.1)	5.1 (0.5)
부산광역시	54.7 (-0.3)	1,616 (-1)	57.1 (-1.1)	4.1 (-1.4)
대구광역시	57.5 (0.5)	1,195 (14)	60.6 (1.3)	5.1 (1.2)
인천광역시	59.8 (1.0)	1,430 (49)	63.6 (1.1)	6.0 (0.2)
광주광역시	57.4 (1.9)	718 (33)	60.0 (2.3)	4.3 (0.5)
대전광역시	57.2 (1.6)	733 (25)	60.1 (1.8)	4.9 (0.3)
울산광역시	58.5 (0.6)	550 (14)	60.7 (1.3)	3.5 (1.1)
경기도	59.7 (2.3)	6,025 (320)	62.4 (2.9)	4.3 (0.7)
강원도	50.2 (-1.1)	630 (-8)	53.3 (0.1)	5.7 (2.0)
충청북도	58.2 (3.4)	759 (50)	60.6 (4.3)	4.1 (1.5)
충청남도	58.4 (2.0)	1,076 (73)	61.5 (2.6)	5.1 (0.9)
전라북도	53.9 (-0.4)	815 (1)	56.3 (0.3)	4.3 (1.2)
전라남도	58.5 (-1.1)	870 (-11)	61.5 (-0.1)	4.9 (1.7)
경상북도	59.8 (2.2)	1,348 (55)	62.5 (2.5)	4.4 (0.5)
경상남도	59.5 (1.6)	1,618 (59)	60.8 (1.5)	2.2 (-0.1)
제주도	66.3 (2.5)	312 (21)	67.9 (2.9)	2.4 (0.5)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